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대응을 위한 패션 전문인력 육성방안

이호정

계명대학교 패션학부

우리나라의 섬유패션산업은 지난 17년간 연평균 \$120억 이상의 무역흑자를 달성해온 주요산업으로, 고용비율이 12.1%나 되는 최대의 고용창출산업이며, EU, 중국, 미국, 터키에 이어 세계5위의 수출국(2003년 15,253백만 불)이며, 합섬직물은 세계 2위, 편직물은 세계1위(2002년)이며, 화섬생산량은 세계5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제조업중심시스템에서 유통중심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다양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특성화·차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패션 전문교육의 현황과 과제분석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세계 패션마켓의 개편에 따른 패션교육의 방향성

1.1. 세계 패션마켓의 개편에 따른 한국 패션마켓의 변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문화와 감성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산업인 패션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시장의 부상과 WTO 가입 및 섬유 쿼터제 폐지 등으로 세계적인 패션마켓의 개편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패션마켓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패션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1.2. 패션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패션교육의 환경변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시스템이 패션산업의 다양화에 의하여, 최근 유통중심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패션비즈니스의 글로벌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및 각종 패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패션디자이너 육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및 다양화, 그리고 유통시스템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교육기관별로 패션 전문교육의 특성화·차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 패션교육 현황과 당면과제

2.1. 패션 전문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패션전문교육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정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433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 중에서 4년제 대학이 235개, 전문대학이 198개이며, 총 학생수가 약 3,010,000명이다(총 인구대비 6.6% 정도).

특히 섬유·패션관련학과가 있는 4년제대학이 92개로 재학생이 약 17,000명이며, 전문대학은 79개로 재학생이 약 10,000명 정도이며, 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42개, 재학생이 약 1,700명이며, 현재 총 재학생수가 대략 29,000명 정도이며, 매년 졸업생수는 약 10,000명 정도(전문대학 약 5,000명, 4년제 대학 약 4,500명, 대학원생 약 500명)이다. 그 외 패션전문학원도 26개가 있으며, 재학생수는 5,000명 정도이며, 매년 졸업생수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중국 등에 유학을 가있는 학생수도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인구의 자연감소와 패션전문분야의 취업률 및 선호도 저하로 인하여, 입학지원자수가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각 대학은 학생확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패션 전문교육의 당면과제

패션마케팅 환경변화에 따른 패션 전문인재 수요 축소 : 1990년대는 패션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액이 증대되던 고도성장기에는 패션산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전문인재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패션 전문학과의 인기가 대단히 높았으며 학생수도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들의 저임금에 의한 생산력 향상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 시장의 저성장·고비용 시스템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비롯한 WTO 개시, MFA 종식 등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대응력 부족 등으로, 패션 전문인재의 급격한 수요 축소와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면서, 각 패션교육기관은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전략 필요 : 인구의 자연증가가 두드러지게 둔화됨에 따른 인구구조의 사이클로 보아, 2008년까지 대학의 입학자원이 현격하게 감소됨에

<표 1> 대학수 및 재학생수 현황(2004년 기준)

(단위 : 개, 명)

교육기관구분	학교수 및 학과수			전공학과분류 및 재학생수		섬유패션관련학과 매년졸업생수
	전체대학수	전체재학생수	섬유패션관련학과 개설대학수	섬유·패션 관련학과 재학생수	재학생수	
전문대학	198	897,589	60(32.3%)	패션관련학과 : 4,110 텍스타일디자인과 : 908	5,018	2,500
4년제대학교	235	1,836,649	126(67.7%)	패션관련학과 : 1,1948 텍스타일디자인과 : 2476 섬유공학과 : 3,116	17,540	4,000
대학원	(75)	276,918	(42)	패션관련학과 : 1,542 텍스타일디자인과 : 199 섬유공학과 : 258	1,731	500
패션전문학원	(26)	(5,000)		교육과정은 세분화되어 있음.		(2,000)
합 계	433	3,011,156	186(100.0%)	24,289		7,000

*대학원은 4년제 대학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수는 대학과 대학원이 별도로 되어 있음.

*패션전문학교 및 학원의 학생수는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원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004)

따라, 비인기학과의 폐지를 비롯하여, 학과명칭 및 교과과정의 변화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 구매패턴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국내 패션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내수 상품의 판매 부진 등 패션전문인력의 수요축소와 인기도 저하 등으로 대학지원자수의 축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교육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한 특성화·차별화 전략이 절실한 현실이다.

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심화에 따른 패션 전문 인력의 필요 : 패션산업의 국제화에 따라, 국제 패션비즈니스의 수행을 위하여, 언어를 비롯하여, 패션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제 및 통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국제적인 전문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 경제, 무역실무, 외국어 등이 가능하면서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춘 패션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3. 패션 전문교육의 대응방안

3.1. 대학별 특성화 필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위한 대학의 특성화 시급 :

전문대학은 섬유·패션관련학과 개설대학이 53개(88.3%), 모집정원은 2,055명(81.9%)으로, 패션디자인과 개설대학(32개: 53.3%)과 패션코디네이트과 개설대학(12개: 20%)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텍스타일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대학은 7개(11.7%), 모집정원은 454명(18.1%)이다. 특히, 섬유공학과는 한개의 대학도 없는 현실이다. 단, 대구에 있는 섬유패션기능대학에 텍스타일시스템과(섬유생산과), 텍스타일컬러테크닉과(섬유염색가공과), 패션소재디자인과(섬유소재설계과)의 3개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본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4년제대학교는 섬유·패션관련학과의 개설대학이 89개, 모집정원은 2,987명이며, 이 중에서 패션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대학(23개: 57.9%)과 패션마케팅 관련학과 개설대학 (15개:11.9%)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텍스타일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대학이 18개, 모집정원수는 619명이다.

특히, 섬유공학과 개설대학이 19개, 856명의 모집정원수를

<표 2> 대학의 섬유·패션관련학과 개설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수	모집정원수	대학수	모집정원수	
패션관련학과	패션디자인과	32(53.3)	1,407(56.1)	73(57.9)	2,391(53.6)
	패션산업/패션비즈니스/패션마케팅과	6(10.0)	134(5.3)	15(11.9)	586(13.1)
	패션코디네이트과	12(20.0)	437(17.4)	1(0.8)	10(0.2)
	기타	3(5.0)	77(3.1)	0(0)	0(0)
	소계	53(88.3)	2,055(81.9)	89(70.6)	2,987(66.9)
텍스타일디자인 관련학과	7(11.7)	454(18.1)	18(14.3)	619(13.9)	
섬유공학 관련학과	0(0)	0(0)	19(15.1)	856(19.2)	
합 계	60(100.0)	2509(100.0)	126(100.0)	4,462(100.0)	

보임으로서, 전문대학보다는 많으나, 섬유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섬유패션도시’인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텍스타일디자인 관련학과의 거의 없는 실정임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섬유·패션 관련학과의 전문화·차별화 필요 : 전문대학의 경우는, 패션디자인과의 개설대학이 32개(53.3%)이며, 패션산업과/패션비즈니스과/패션마케팅과 등의 개설대학이 6개(10.0%), 패션코디네이트과의 개설대학이 12개(20.0%)이다. 또한 텍스타일디자인 관련학과는 7개대학(11.7%)이며, 섬유공학과는 전혀 없는 현실이다.

4년제대학교의 경우는, 패션디자인과의 개설대학이 73개(59.%)이며, 패션마케팅 관련학과 개설대학이 15개(11.9%), 패션코디네이트과의 개설대학이 1개대학(0.8%)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는, 공통적으로 패션디자인과가 53.3%~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패션마케팅과가 10.0%~11.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패션코디네이트과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20.0%를 차지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교는 0.8%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코디네이트는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감성과 테크닉 위주의 분야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섬유·패션산업의 시스템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과의 개설과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텍스타일디자인부분, 패턴디자인부분, 섬유생산·염색·설계부분, 유통부분 등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과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의 패션관련학과 축소에 따른 뷰티/미용학과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최근 3~4년 동안에 전문대학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뷰티/미용관련 학과는 61개대학, 모집정원 1,865명으로, 거의 패션분야의 모집학과수 및 정원수(2,509명)와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패션관련학과의 있는 대학수가 89개교, 모집정원수가 2,987명이나, 뷰티/미용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수는 13개교, 249명의 모집정원수를 보임으로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패션관련학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최근 뷰티/미용학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년제 대학교에서는 패션관련학과와 감소 추세가 다소 둔한 상황이라는 하나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뷰티/미용학과와 증가추세가 전문대학에 비하여 4년

<표 3> 패션 관련학과 및 뷰티/미용학과 개설 현황

구분	대학수	모집 정원수	계	
			대학수	모집 정원수
섬유패션 관련학과	2년제	60	186	5,971
	4년제	126		
뷰티/미용학과	2년제	61	74	2,114
	4년제	13		

제대학교에서는 둔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뷰티/미용학과와 학문적인 깊이와 급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나, 당분간 어느 정도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3.2. 패션 전문교육의 글로벌화 방안

패션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해외교류 활성화 : 해외 자매대학 및 교류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대학은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해외 패션대학 및 패션스쿨과 자매대학 체결 및 교류교류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대학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중국 상해 동화대학 등).

국제적인 기업연수 및 인턴실시를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으로 해외지사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해외기업에서 연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하여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려운 실정이나 국제 어학연수 및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대학에서는 자매대학 및 교류대학에서 개최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호주, 중국, 캐나다 등지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방학기간의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이태리의 폴리모다 패션스쿨 및 도무스 아카데미 등에서 실시하는 하기방학 패션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해외유학 활성화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중이다.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교환교수제 실시를 통한 대학간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자매대학이나 출신대학 및 교류대학 간에 교환 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수들의 안식년 기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행사 참여 활성화 : 국제 패션쇼,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패션쇼 및 전시회에 해외대학을 초청하거나, 해외대학으로 가서 단독 및 공동패션쇼와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국제무대의 체험을 하게함과 아울러, 대학간의 친선 및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특히 K대학에서는 독일 하임텍스틸 박람회(독일국제가정용품직물박람회), 미국 라스베가스 메직쇼(의류박람회), 중국 프리뷰인상하이(중국상해섬유패션박람회), PIS(대한민국섬유박람회), PID(대구국제섬유박람회), BITFAS(부산국제섬유패션박람회) 등 전시회 및 박람회에 출품하여 전시 및 판매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의 체험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다.

국제 패션디자인 컨테스트 개최 및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대학이나 기업 및 패션전문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디자인 컨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디자인 감각과 실력을 겨루어 볼 수

있는 경험을 시키고 있다.

국제학술제 활성화를 통한 교류증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규모의 각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나라의 학자 및 패션관련업계 인사들의 강연 및 학술발표를 통하여, 학술적인 교류를 비롯하여 패션산업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 패션전문가 초청특강 및 세미나 실시를 위하여, 대학 및 기업에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해외 패션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과 패션감성을 익히고, 정보교환을 통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각 대학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 교환 학생 제도 및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 섬유·패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로, 섬유·패션 분야의 국제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대학에 따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K대학에서는 1999년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섬유·패션·국제통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FISEP : Fashion International System Educational Program)으로, 패션대학,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대학의 우수한 신입생을 매년 30명씩 선발하여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국제통상 패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전액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어훈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전용 기숙사의 운영을 비롯하여, 외국어전용 강의실, 인터넷서널 라운지운영 등을 통한 외국어훈련의 생활화 환경조성, 각종 외국어 훈련교육 강화, 정기적인 해외어학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결 론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세계 패션마켓의 구조개편과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패션 전문교육의 시스템 변화 및 교육 기관별 특성화·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

둘째, 패션산업의 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패션관련 학과와 학생수 감소 경향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시스템에서 유통중심시스템으로의 변화에 따른 유통 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셋째, 패션 전문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대학별·지역별·학과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패션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위한 대학별 특성화가 시급하며, 패션 관련학과의 다양화 및 교육과정의 전문화·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섬유공학 분야의 전문인재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창업·육성·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패션관련학과 및 학생수는 축소하고 있는 반면, 뷰티/미용 관련학과 및 학생수 증가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패션 전문교육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국제교류 활동으로, 자매대학 및 교류대학 확대, 국제적인 기업 인턴쉽 실시, 국제적인 단기연수 및 어학연수 활성화, 해외 유학 활성화, 적극적인 교환 교수제 등을 실시하고, ②국제적인 행사참여 활동으로, 국제 패션쇼 공동개최 및 참가,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활성화, 국제 패션컨테스트 참가 활성화, 국제학술제 활성화, 국제 패션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적극 유치, ③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국제 교환학생 및 장학제도 활성화, 국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등을 활성화하여, 패션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션 전문교육의 글로벌화 및 특성화 대학의 사례로 K대학교의 사례를 주로 소개한 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2004)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입학관련자료실". 진학사, 서울.
 계명대학교 패션대학 특성화실적 (2005)
 원대연 (2005) 한국패션산업의 비전과 패션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
 한국의류산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대구, pp.23-34.
 이만중 (2005) 글로벌 패션 전문인재 육성 방안.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pp.26-28.
 국성훈 (2003) 글로벌시대의 패션기업 전략. 한국의류산업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대구, pp.17-28.
 김정희 (2005) 섬유교역자유화에 따른 한국 섬유산업의 영향 및 대응전략.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pp.26-28.



이호정(Ho-Jeong Lee)

일본 문화여자대학 대학원 졸업(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
 코오롱상사(주) 패션·스포츠사업본부
 디자인실장
 대구 섬유패션기능대학 학장
 현재 : 계명대학교 패션대학 학장
 Tel. +82-53-620-2126, Fax. +82-53-620-2225
 E-mail : hjlee@kmu.ac.kr